

#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영미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 Study on the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Young-Mi Han

Assis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unsan College of Nursing

요 약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전공선택 주제, 전공만족도에서 사회적지지는 병역, 전공선택 주제,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생활적응은 전공 선택 주제,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효율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며 다양한 변수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남자 간호대학생,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A survey of 200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conducte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ocial support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Self-efficacy differed between major choice subjects and major satisfaction, social support differed significantly in military service, major choice subjects, and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differed significantly in major choice subjects, major choice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The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enhancement program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continuous research with various variables are needed.

Key Words : Male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College Lif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국가시험 전체 합격자 가운데 남자 간호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1.1%였던 것이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합격자의 10.96%를 차지하면서 연 배출인원이 처음으로 2천명을 넘었는데 남학생 응시생 2,400여 명 중 약 95%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1]. 그러나 남자 간호대학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자 간호대학생은 간호라는 직업에 대한 성공정관념으로 인한 어려움과[2,3], 성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4], 여학생 집단 내에서의 이질감과 불편감[5,6], 남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여학생 위주의 교과과정과 남학생을 위한 시설부족[7], 군 입대로 인해 단절된 학업과 인간관계를 복학 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함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2,7]등으로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높은 자기효능감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9]. 자기효능감은 갈등상황이나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와 효율적인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8]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하다. 그동안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10-12]이 있어 왔지만 남자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을 둘러싼 중요한 타인 즉, 가족, 친구, 선배, 교사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환경적 지원을 의미하며 그 사람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연구되는 변인들 중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다[13].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 극복과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어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는데[14] 특히 소수의 남자 간호대학생에게 외부자원으로부터의 물리적, 정서적 지지는 학과적응의 주요한 요인으로 규명되고 있다[14].

이렇듯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7-12,14-17]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자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며, 남녀 간호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9-12,14,16,17]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대상 남녀 비율은 여자 간호대학생에 비해 남자 간호대학생은 극히 적어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점차 남자 간호학생 수가 증가함에도 남자 간호대학생에 대한 교육 환경의 구축이 미흡한 것이 표명되고[15]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간호대학생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의 정도와 그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동의한 충남도에 소재한 7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출 하였다. On-line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40부가 회수(97.9%)되었으며, 응답이 불완전한 자료 40부를 제외한 총 200부(81.6%)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설문지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이 가능하며 연구가 마무리된 후에는 자료를 전면 폐기함을 설명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Sherer 등 (1982)이 개발한 척도를 Hong[18]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부터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13개의 부정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ng[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 2.3.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측정은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Yu & Seol(2015)[13]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각한 사회적지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5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1점부터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Yu & Seol[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 2.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측정은 Jeong & Park[19]이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으로 총 19개 문

항이며 1점부터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ng & Park[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5세 이하가 94.0%, 26세 이상은 6.0%로 25세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17.5%, 2학년 28.5%, 3학년 44.0%, 4학년 10.0%의 분포를 보였다. 병역상태는 군필인 경우가 60.0%, 미필이 38.5%, 면제인 경우가 1.5%이었다. 전공선택 동기는 취업률 50.0%, 적성 고려 42.5%, 수능점수 6.5%, 기타 1.0% 순이었다. 간

Table 1.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colle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Variables	Category	N(%)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daptation to college	
			M±SD	t/F (p)	M±SD	t/F (p)	M±SD	t/F (p)
Age	≤25	188 (94.0)	3.28±0.47	-3.824 (.512)	3.73±0.64	-0.85 (.452)	3.35±0.67	-1.86 (.428)
	≥26	12 (6.0)	3.83±0.53		3.90±0.53		3.74±0.52	
Grade	1st	35 (17.5)	3.25±0.43	1.67 (.176)	3.69±0.62	2.16 (.094)	3.49±0.61	1.30 (.277)
	2nd	57 (28.5)	3.23±0.66		3.59±0.71		3.25±0.67	
	3rd	88 (44.0)	3.37±0.52		3.85±0.58		3.44±0.71	
	4th	20 (10.0)	3.45±0.43		3.78±0.55		3.45±0.58	
Military service	served	120 (60.0)	3.38±0.52	2.77 (.065)	3.83±0.63	3.33 (.038)	3.41±0.65	0.09 (.915)
	not served	77 (38.5)	3.22±0.30		3.62±0.62		3.37±0.71	
	exemption	3 (1.5)	3.13±0.72		3.36±0.48		3.42±0.63	
choice of Nursing	by myself	152 (76.0)	3.38±0.49	9.77 (.002)	3.83±0.63	13.41 (.000)	3.50±0.65	16.90 (.000)
	by others	48 (24.0)	3.13±0.45		3.46±0.57		3.06±0.63	
Major selection motivation	apitude <sup>a</sup>	85 (42.5)	3.38±0.48	1.94 (.124)	3.80±0.61	0.97 (.407)	3.60±0.65	5.83 (.001)
	easiness seeking job <sup>b</sup>	100 (50.0)	3.28±0.49		3.73±0.62		3.23±0.65	
	according to grades <sup>c</sup>	13 (6.5)	3.13±0.51		3.49±0.83		3.22±0.65	
	others <sup>d</sup>	2 (1.0)	3.76±0.71		3.86±0.25		4.05±0.45	
Satisfaction of major	very dissatisfied <sup>a</sup>	3 (1.5)	3.07±0.46	4.15 (.003)	3.28±0.45	4.58 (.001)	3.28±0.45	5.93 (.000)
	dissatisfied <sup>b</sup>	16 (8.0)	3.10±0.43		3.50±0.73		3.08±0.51	
	moderate <sup>c</sup>	91 (45.5)	3.24±0.40		3.61±0.60		3.22±0.60	
	satisfied <sup>d</sup>	70 (35.0)	3.40±0.54		3.90±0.60		3.58±0.70	
	very satisfied <sup>e</sup>	20 (10.0)	3.62±0.60		4.06±0.61		3.80±0.73	

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45.5%로 가장 많았고, 만족 35.0%, 매우 만족 10.0%, 불만족 8.0%, 매우 불만족 1.5% 순이었다(Table 1).

### 3.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3.32 \pm 0.49$  점, 사회적지지는  $3.74 \pm 0.63$  점, 대학생활적응은  $3.39 \pm 0.67$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core for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college (N=200)

Variables	M±SD
Self-efficacy	3.32±0.49
Social support	3.74±0.63
Adaptation to college	3.39±0.67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전공선택 주체( $t=9.77, p=.002$ ), 전공만족도( $F=4.15, p=.003$ )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공선택 주체에서 본인의 의사( $3.38 \pm 0.49$ )가 주위의 권유( $3.13 \pm 0.45$ )보다 많았고, 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 $3.62 \pm 0.60$ ), 만족( $3.40 \pm 0.54$ ), 보통( $3.24 \pm 0.40$ ), 불만족( $3.10 \pm 0.43$ ), 매우 불만족( $3.07 \pm 0.46$ ) 순으로 많았다. 사후분석에서는 전공만족도에서 매우 만족이 보통, 불만족보다 크기가 컸다(Table 1).

###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병역( $t=3.33, p=.038$ ), 전공선택 주체( $t=13.41, p<.001$ ), 전공만족도( $F=4.58, p=.001$ )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병역여부에서 군필( $3.83 \pm 0.63$ ), 미필( $3.62 \pm 0.62$ ), 면제( $3.36 \pm 0.48$ ) 순으로 많았고, 전공선택 주체에서는 본인의 의사( $3.83 \pm 0.63$ ), 주위의 권유( $3.46 \pm 0.57$ )가 많았고, 전공만족도는 매우 만족( $4.06 \pm 0.61$ ), 만족( $3.90 \pm 0.60$ ), 보통( $3.61 \pm 0.60$ ), 불만족( $3.50 \pm 0.73$ ), 매우 불만족( $3.28 \pm 0.45$ ) 순으로 많았다(Table 1).

### 3.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전공 선택주체( $t=16.90, p<.001$ ), 전공선택 동기( $F=5.83, p=.001$ ), 전공만족도( $F=5.93, p<.001$ )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본인의 의사( $3.50 \pm 0.65$ )가 주위의 권유( $3.06 \pm 0.63$ )보다, 전공선택 동기는 기타( $4.05 \pm 0.45$ )가 적성( $3.60 \pm 0.65$ ), 취업률( $3.23 \pm 0.65$ ), 수능점수( $3.22 \pm 0.65$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족( $3.28 \pm 0.45$ ), 불만족( $3.08 \pm 0.51$ ), 보통( $3.22 \pm 0.60$ ), 만족( $3.58 \pm 0.70$ )보다 매우 만족( $3.80 \pm 0.73$ )이 유의하게 높았다. 사후분석에서 전공선택 동기는 수능점수보다 적성, 취업률이 크고 전공만족도는 불만족, 보통보다 매우 만족이 그 다음으로 만족이 컸다(Table 1).

### 3.6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은 서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 $r=.471, p<.001$ ),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 $r=.542, p<.001$ ),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 $r=.593, p<.001$ )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of the variables (N=200)

Variable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daptation to college
Self-efficacy	1		
Social support	.471**	1	
Adaptation to college	.542**	.593**	1

\*\*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밝히며,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32 \pm 0.49$  점으로, 남녀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 & Kim[20]의 3.34 점, Kim[21]의 3.38 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2학년 남자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22]

의 3.70점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 & Chae[11]의 2.95점보다는 높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걱정과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기 때문에[21],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회적지지는 평균평점  $3.74 \pm 0.63$ 점으로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 & Yeom[15]의 3.88점, 남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wag[14]의 3.91점, Lee, Lee & Kim[23]의 3.88점보다 낮았고 남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Moon & Park[24]의 3.7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남자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측정도구나 문항을 사용한 연구결과가 많지 않아 다른 연구와 본 연구를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평균평점은  $3.39 \pm 0.67$ 점으로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 & Yeom[15]의 3.43보다는 약간 낮았다. 그리고 같은 도구를 사용한 Ko[25]의 3.30과 다른 도구를 사용한 Won[26]의 3.35점보다 약간 높았으나 이 두 연구에서 여학생보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Ko[25]와 Won[26]의 연구 대상자가 1학년과 2학년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4학년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1.3%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전공선택 주제, 전공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전공선택 주체가 본인의 의사일 경우( $M=3.38$ )가 주위의 권유일 경우( $M=3.13$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할수록 자기효능감은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27]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전공학과에 대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공선택이 이루어 질 때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9]. 즉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학생은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자신의 전공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2].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병역, 전공선택 주제, 전공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구체적으로 군필인 경우, 간호학과를 자의로 선택한 경우와 전공만족도에서 보통 이상인 경우에서 높았다. 군필자의 사회적지지 수준이 미필

자나 면제자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15]에서 군대를 다녀온 후의 적응에 대한 유의수준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전공 만족도가 낮은 학생이 인지하는 사회적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eon & Yeom[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구 결과에서 특히 사회적지지는 전공만족도에 매우 만족인 경우( $M=4.06$ )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매우 만족인 경우가 불만족과 보통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t=4.58, p<.001$ ) 사회적 지지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와 좋은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대인관계 속에서 강화되는 것이므로 교수나 학생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이 사회적지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23,28].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전공선택 주제,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간호학과를 자의로 선택하고, 적성을 고려한 경우, 그리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일 경우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공 선택 동기에서 적성을 고려한 경우가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인의지로 간호학과를 지원한 경우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29]와 일치하며, 취업전망보다는 적성 또는 흥미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30]와 일치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대학생활적응수준이 높았다는 결과[31]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전공선택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으므로 어린 시절부터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진로교육[16]과 전공체험의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기회의 제공은 미래 직업과 관련된 전공선택이 본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적응으로 연결될 것이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과 순상관관계( $r=.54,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8의 순상관관계를 보인 Choi & Lee[10]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자기효능감은 예상할 수 없는 긴장된 상황에서 개인이 특별한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인지적 판단으로, 간호대학생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전략을 추구하게 하고[32] 임상실습이나 학교생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33] 대학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다음으로 높은 양적 상관관계( $r=.59, p<.001$ )를 나타내,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34]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중요 예측요인으로[15,34] 대학내에서는 멘토-멘티 활동이나 전공동아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자 간호대학생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34] 성공적인 역할모델의 제시와 양성평등의 교과과정의 개발은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또한 남자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에서 부모의 지지나 친구의 지지에 비해 교수의 지지가 낮다는 보고가 있으므로[15] 교수자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여 수행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남자 간호대학생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변수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중재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전공선택 주체,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도 대학생활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전공선택 주체와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지지는 병역여부와 전공선택 주체,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전공 선택주체,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Korean Nurse Association(2018).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1&idx=22520>
- [2] M. Kim, S. H. Cho & G. S. Jeon(2014). Barriers and Strategies to Adaptation among Korean Male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rch*, 22(3), 109-119.
- [3] E. Y. Cho(2015). The Effect of Gender Stereotype and Military Duty Planning Level on Major Satisfaction in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6)(B), 3375-3390.
- [4] E. J. Lee(2017). Types of Male College of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Their Academic Depart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1), 108-117. DOI : 10.5977/jkasne.2017.23.1.108
- [5] J. S. Lee, N. J. Kim, H. J. Doo, J. Y. An & Y. K. Lee(2017). Adaption Experience of Male Students in Department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2), 159-169.
- [6] I. S. Park (2011). The Adaption Process of Male Nursing Students. *Global Health and Nursing*, 1(2), 55-64.
- [7] Y. R. Park(2009)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Colleges of Nursing.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6(4), 449-458.
- [8] S. J. Lee & J. H. Yu(2008).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2(3), 589-607.
- [9] S. O. Choi, J. K. Park, Jin Kyoung & S. H. Kim(2013).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182-189. DOI : 10.5977/jkasne.2015.21.2.182
- [10] H. J. Choi & E. J. Lee(2012).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2), 261-268.
- [11] H. J. Jung & M. J. Chae(2018).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Academic Stres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8), 403-417. DOI : 10.35873/ajmahs.2018.8.8.039
- [12] G. S. Jeong & E. E. Park(2019). Relationships among the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7(4), 253-263.
- [13] E. K. Yu & H. S. Seol(2015). Factorial Structure of the Social Support Scale. *Survey Research*, 6(1), 155-184.
- [14] Y. K. Kwag(2013).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5), 2178-2186.  
DOI : 10.5762/KAIS.2013.14.5.2178
- [15] H. O. Jeon & E. Y. Yeom(2014).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796-807.  
DOI : 10.5392/JKCA.2014.14.12.796
- [16] J. H. Oh(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873-884.  
DOI : 10.5392/JKCA.2014.14.10.873
- [17] E. K. Byun, E. S. An(2019)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cy, Humor sens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8), 75-84.
- [18] H. Y. Hong(1995).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press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9] E. I. Jeong & Y. H. Park(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2), 69-92.  
DOI : 10.17927/tkjems.2009.21.2.69
- [20] S. Y. Lee & Y. Y. Kim(2016).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309-318.  
DOI : 10.14400/JDC.2016.14.3.309
- [21] S. O. Kim (2016).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2), 210-219.  
DOI : 10.5977/jkasne.2016.22.2.210
- [22] Y. H. Kim(2009). Relationship of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6(3), 307-315.
- [23] S. Y. Lee, J. S. Lee & S. Y. Kim(2019). The Convergent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 249-257.  
DOI : 10.14400/JDC.2019.17.1.249
- [24] G. W. Lee, I. O. Moon & S. K. Park(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4(2), 15-27.
- [25] M. S. Ko(2015).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0), 280-291.  
DOI : 10.5392/JKCA.2015.15.10.280
- [26] H. J. Won(2015).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9(1), 123-131.
- [27] H. S. Park, J. M. Yun, S. N. Lee, S. R. Lee & M. S. Lee(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3(1), 35-45.  
DOI : 10.21032/jhis.2018.43.1.35
- [28] S. Y. Lee & J. S. Lee(2017). The Convergent effect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ocial support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403-412.  
DOI : 10.14400/JDC.2017.15.12.403
- [29] K. O. Lee & H. J. Chae(2016)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0), 355-365.  
DOI : 10.14400/JDC.2016.14.10.355
- [30] Y. J. Kim, H. N. N. Yoo & M. J. Park(2016).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261-270.  
DOI : 10.5762/KAIS.2016.17.10.261
- [31] H. W. Kwak(2018).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Ability and Frustration Tolerance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233-242.  
DOI : 10.14400/JDC.2018.16.8.233
- [32] S. H. Park & E. K. Byun(2015). Factors influencing the mental health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2), 8284-8291.  
DOI : 10.5762/KAIS.2015.16.12.8284
- [33] E. J. Shin(2008). A Study Related to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3), 330-386.
- [34] W. H. Jun, M. J. Jo & H. J. Na(2015). Relationships between Anger Expression, Social Suppor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3), 219-228.  
DOI : 10.5392/JKCA.2015.15.03.219

한 영 미 (Young-Mi Han)

[장학원]



- 2003년 2월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박사과정)
- 2018년 9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간호관리, 산업간

호, 산업장 근로자

· E-Mail : hym7802@naver.com